

美 군인출신 스님, 폴스빌 시민 마음 움직여

돌마 스님, 소령직 놓고 출가 명상·침술봉사로 포교

남다른 경력을 뒤로 한 채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초심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백인의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The Gazette) 지가 "육군 소령이라는 세속의 직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수계를 받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돌마 조아니스(Dolma Johanson, 49) 스님에게 메릴랜드 주의 지역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육군 소령이라는 세속의 직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수계를 받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돌마 조아니스 비구니 스님이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 주에서 파르타인 경찰로 사퇴 첫 발을 내딛었던 돌마 스님은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군에 입대 후 미 국방부에서 분석가로 근무하기까지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2008년 돌마 스님의 삶의 여정은 급변했다. 자신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 명령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돌마 스님은 전역을 결심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소도시인 폴스빌(Pooleville)에 있는 쿤장 팻을 조링(Kunzang Palyul Choling) 사원에서 200여 가지가 넘는 계율을 받고 수행자의

길을 나섰다. "20여 년 전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평화 유지군 자격으로 두 달 정도 머문 적이 있다"는 돌마 스님은 "그때 한 여성이 피코이 상점한 자신의 어린 자녀를 우리 일행에게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긴급 이동 명령을 받았던 우리는 여성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하고, "평화 유지군으로 근무할 때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본국(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자신의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The Gazette) 지에 따르면 돌마 스님이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 방위군에

서 복무할 때는 불교사원이나 명상센터를 찾는 일이 잦았다. "사원에서 예불을 올리고 센터에서 명상을 수행할 때 마음이 가장 평온했다"고 말한 돌마 스님은 "중요로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전역을 결심했고, 비구니계 수계에 이어 메릴랜드대학 부설 타이 소피아(Tai Sophia) 연구소에서 침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The Gazette) 지는 "돌마 스님은 현재 자신이 출가한 쿤장 팻을 조링 사원에 주석하며 폴스빌 주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무료 침술을 시술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여성 수행자, 돌마 스님의 활동이 폴스빌 지역 주민들의 신심을 키우는 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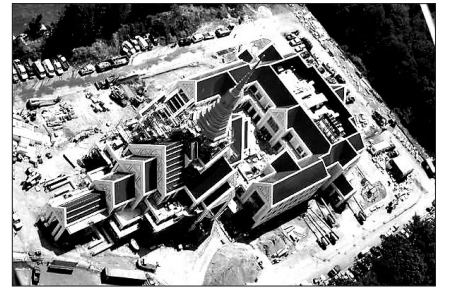
또한 (The Gazette) 지는 "가르치고 시술하는 지금의 삶이 그 어떤 여정보다 행복하다"는 돌마 스님의 말을 인용, "깨치고 배우는 삶이 한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돌마 스님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폴스빌의 시민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 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매사추세츠에 다목적 불교 공간 들어선다

태국불교공동체, 태국정부 지원으로 진행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브리스틀 카운티(Bristol County)의 레이남(Raynham)시에 다목적 불교·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선다.



태국불교공동체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레이남시에 다목적 불교·문화복합공간 설립을 앞두고 있다.

(Daily Taunton) 지는 "수행자나 명상가의 전유물이 아닌 다목적 불교복합공간, 나와민타라(Nawamintara) 사원의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태국 불교계의 원력을 모은 이 공간은 수행과 수행 공간에 앞서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에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폴 채플(Paul Chapple) 법사는 "6천만 달러(약 611억 원)가 들어간 나와민타라 사원은 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며 한편으로 종교를 떠나 포럼, 연수, 쇼핑, 공연 등의 공간으로 적극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Daily Taunton) 지에 따르면 나와민타라 사원은 지난 2011년 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건축을 시작했다, 현재 98%의 공정을 밟고 있다. 또한 태국의 수도 방콕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나와민타라 사원에는 50여 명의 태국 스님이 상주할 예정이다.

"법당에는 4.6미터의 금동 불상을 봉안하고, 그 주변으로 10대 제자도 모셔, 장엄함을 극대화했다"는 폴 채플 법사는 "수행과 수행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은 물론 태국불교의 정수를 보여줄 사원이면서도, 미래 불자가 될 수도 있을 동시에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도 많이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Daily Taunton)지는 "나와민타라 사원에는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객실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전시·공연·세미나 등이 가능한 대규모 문화 공간이며, 쇼핑 공간도 마련되었다"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 나와민타라 사원을 '종교·문화 복합시설'로 보는 까닭"이라고 전했다.

또한 (Daily Taunton) 지는 "레이남 걸스카우트를 비롯해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단체나 회사 또는 조직들이 향후 '낯설지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종교를 떠나 그들만의 행사를 진행하는 환경을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 채플 법사는 "명상과 수행을 하고 싶은 불교도에서 단지 불교를 궁금해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나 모임을 마련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모두 끌어안는 부처님 요람으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감리교회 건물이 명상 센터로

LA 프랭클린 애비뉴, '종교간 소통' 귀감으로 주목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투구 모양의 지붕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창문 등 전형적인 교회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오래된 교회 건물이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주민의 신심을 두드리고 있다.

해 명상, 교리 등 불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LA Weekly) 지는 "74년간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에서 지역 주민의 영성을 이끌었던 감리교회의 건물이 오는 6월 말경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며 "서로 다른 종교가 도심 속 종교 부지를 주고받으며 '종교 화합'이라는 귀감의 단초가 되었던 '옛 건물'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랭클린 애비뉴는 종교 시설의 위치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한 데이비드 펠레이(David Farley, 감리교회) 목사는 "사이 교세가 늘어 보다 넓은 장소에서 사역을 펼치고자 이 건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을 때, 다른 종교와 계약할 의사는 없었다"며 "그러나 카담파 측의 설득과 아시아에서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는 더더욱 없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프랭클린 애비뉴에 있던 감리교회 건물이 명상 센터로 탈바꿈 했다. 사진은 명상 센터 내부.

는 '옛 교회 건물'의 카담파 명상센터는 현재 건물 지붕에 설치된 흰색 십자가를 내리고,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두 마리 황금 사슴 상을 올려놓았다. 또한 건물 내부에 부처님을 봉안하고, 불교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목적 공간도 마련했으며, 여기에 기존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연꽃 등 불교 상징을 수놓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바꾸는 등

의 공사도 진행됐다. 겐 켈상 리빠 스님은 "6월 말경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건물 안팎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며 "카담파 명상센터는 개인 법회를 시작으로 명상, 교리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정토진종 '혼간지파' 주지 37년 만에 교체

6일 문수 법통 계승식... 고준 스님이 25대 취임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 혼간지(本願寺)파(본산·니시(西)혼간지, 교토시 시모교구(京都市 下京區)는 6월 6일, 문수(門主, 일문의 법통을 이은 주지) 교체에 따르는 '법통 계승식'을 니시혼간지에서 진행했다. 교체는 37년 만으로, 전국의 승려와 신도 등 약 8천 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새로운 주지로 선출된 고준 스님.

오타니 고신(大谷光眞) 전 문수의 뒤를 이은 장남 고준(光淳) 스님으로 그는 취임사에서 "미래를 향해 (정토진종의 가르침의) 법의가 전해져가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신 전 문수로부터 계승한 보라색 승복을 입은 고준 새 문수는,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실례로 현대의 여러 문제에 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혼간지파에 따르면 고준 새 문수는 교토에서 태어났다. 1992년 승려가 될 득도식을 치뤘, 문수 후계자인 신문(新門)이 됐다. 호세이(法政)대학을 졸업해, 2008

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쿄 쓰키지(築地) 혼간지에서 부주직을 맡았다.

혼간지파는 신도 약 780만 명(2013년 판 종교연감)을 안는 일본 최대급 불교교단. 문수는 종조 신란(親鸞)이래, 오타니가계에서 세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수 경향자의 생존중 앙위는 4차례 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미기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미기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여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 2013년 10월 6일 수요일 - KBS1 TV 05시 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미기목 효능 방영

한 바퀴 돌면 기력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중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어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여, 조갈증, 경노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용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강성균) · 제조원 : 구암식물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5년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치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단사찰 가능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